

민족의 자랑 동명왕릉과 그 주변의 역사유적들

평양시 력포구역 통산리에 가면 고구려 시조왕 동명왕의 무덤이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동명왕은 지난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를 세운 왕이다. 고구려사람들은 강국으로서의 고구려부흥국가를 창건하고 그 기틀을 마련한 동명왕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였으며 그의 무덤도 특별히 잘 꾸리었다. 원래 동명왕의 무덤은 그가 활동하다가 사망한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에 있었으나 5세기 중엽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시조 동명왕의 무덤을 현재의 위치에 가져왔다. 동명왕릉이 있는 지대는 산과 강들이 적당히 배합되



동명왕릉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체육음료

최근에 체육인들뿐 아니라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속에서 체육음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있다. 체육음료는 체육경기나 운동을 할 때 인체에서 소모되는 수분과 에너지를 빨리 보충해주어 육체적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만든 음료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운동을 할 때 몸안에 축적된 당질이 에너지를 전환되면서 내는 열을 땀을 통하여 밖으로 내보내어 체온을 유지한다. 특히 마라톤을 비롯한 중장거리달리기, 축구, 농구와 같이 육체적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때 일반음료를 마시면 물과 당이 체액으로 잘 흡수되지 못하므로 갈증이 계속

하여 동명왕릉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건되어 1993년 5월에 준공하였다. 동명왕릉은 고구려시조왕의 무덤답게 천년강국이었던 고구려의 위용을 시위하듯 웅장하게 솟아있다. 돌칸흙무덤인 동명왕릉의 무덤무지는 방대형이며 높이가 11.5m, 무덤한변의 길이는 34m이다. 왕릉의 정면에는 돌상과 돌등 그리고 법조각상이 있고 좌우앞으로 오이와 마리, 송양, 재사를 비롯한 문관들과 부노노와 목기, 무물 등 무관조각상들, 그들이 타던 말조각상들이 세워져있다. 무덤구역의 아래단에는 동명왕의 출생과 활동,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사실들이 적혀져있는 《고구려시

조동명성왕비》와 《고구려시조동명성왕기적비》가 세워져있다. 동명왕릉으로부터 약 120m 떨어진 곳에는 동명왕의 명복을 빌던 고구려시기의 사찰이었던 정릉사가 있다. 정릉사는 동명왕릉을 발굴하면서 주변의 유적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발굴되었다. 정릉사는 고구려사람들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오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393년에 지은 사찰이다. 정릉사의 부지면적은 3만 7 000㎡로서 세나라시기 사찰들가운데서 규모가 제일 클뿐아니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즉 크게 다섯개 구역으로 나뉘어져있는데 그 안에 18채의 크고작은 건물들과 탑이 있었고 매 구역과 구역, 건물들사이에는 회랑으로 연결되어있었다. 정릉사는 8각탑을 중심으로 그 북쪽과 동쪽, 서쪽에 세채의 금당을 배치한 구조



정릉사의 일부

교양, 수양 (2)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한다.》 배우는것은 한계와 끝이 없으므로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야 함을 이르는 말. 《사람은 작게 날아서 크게 길러야 한다.》 사람은 크게 날아서 큰사람이 되는것이 아니라 교양을 잘하여 키워야 큰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어려서부터 교양을 잘해야 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재도 떨어야 솟음이 빛난다.》 재를 떨어버려야 붉게 되는 솟불이 제 빛을 드러내듯 늘 자신을 반성하여 자기에게 있는 약점과 허물을 없애버려야 자신을 더 빛낼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고인물이 썩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람은 언제나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음을 교훈적으로 비겨 이르는 말.

본사기자

나라 시조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흥왕을 축복하는 사찰이라는것으로 하여 온 나라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끈 때문이었다. 이날의 일행들속에는 당시 나라의 실권을 잡고있던 고종왕의 아버지인 대원군 리홍익이 가장 믿는 신하들도 여러명 섞여있었다. 월정사를 찾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건 단군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먼저 단군굴에 있는 아사봉을 향하여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리곤 하는 게을가 둔덕까지 주지가 직접 나와서 이들을 맞이하였다. 산대찰을 수없이 다녔는데 이곳의 부처님처럼 이마에 백호가 있는 부처는 보지 못했소그려. 다른 고장의 사찰들에서 말을 들어보면 우리 나라 불상들가운데 백호를 지닌 부처는 몇이 안되며 그 백호들마다 자기 나름의 깊은 뜻을 간직하고있다고 하는데 여기 월정사 백호의 뜻은 무엇이지요? 《기미》라고도 불리우는 백호는 부처의 이마 한복판에 금이나 흑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불인 업전크기의 동그란 장식물이다. 승정원 승지의 이 물음에 주지가 정중하게 대답하였다.



이들을 주지가 안내하여 본당인 극락보전의 부처상에 이르렀을 때 승정원 승지가 자기는 월정사에 처음 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의미심장하게 하여 못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 사람이 회갑을 넘기도록 이 나라 팔도의 명



선군절 54돐경축 평양시학생소년들의 대동강도하경기 진행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암치료기술

의학과학원 중앙연구소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지난 10여년간 수술후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과 암이 전이되기 시작한 사람들의 생존기일을 훨씬 늘이였다. 암환자들의 대부분은 암의 전이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암의 전이를 막는데서 효과적인 면역치료방법들을 립상실험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의학과학원 중앙연구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암재발, 전이예방약의 질적수준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고 립상실험에 받아들이었다. 지난 10여년동안 수술을 받은 수백명의 암환자들에게 암악전을 집중한데 의하면 간암환자들의 5년생존률이 제일 높았다. 치료과정에 이들은 간암, 폐암,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암악전치료를 배합할 때 5년생존률이 종전

의 다른 치료방법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이곳 연구자들이 개발한 암악전은 함암제주사를 맞은 후에 일반적으로 보게되는 머리칼빠지기, 심장계통과 소화기계통 및 비뇨기계통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거의나 없으면서도 치료효능이 높아 여러 나라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들이 만든 암악전은 몇해전에 진행된 유럽의 어느 한 국제토론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콩팥암치료에서 뜻밖의 좋은 결과를 본 외국의 한 인사는 지난해에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왔다. 자기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갈 높은 목표를 세운 이곳 연구자들은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최근년간에는 수술후 전이되기 시작한 암환자의 치료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개발한 암악전과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

고있는 함암제들을 배합한 새로운 암치료방법을 립상실험에 받아들이는 후 간암, 폐암, 위암 등이 전이된 환자들의 생존기일이 훨씬 늘어났다. 암이 전이되어 몇달 혹은 한해밖에 살지 못할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수십명의 사람들이 세계적높이에 확고히 올라선 암치료방법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 평양시 형제산구역에서 사는 한 녀성은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던 자기가 다른 나라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값비싼 치료를 무상으로 받으며 꿈과 희망을 지니고 지난 시기 이룩해온 성과를 더욱 확대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역사가 오래고 우수한 조선의 가무

우리 나라에서 가무의 역사는 매우 오래다. 우리 나라에서는 B. C. 3000년경에 해당하는 청동기문화중에서 벌써 빠피리, 청동방울을 비롯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리용되는 관악기와 타악기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고대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하는 가무는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더욱 성행하면서 적지 않은 유산들이 창조되었다. 이 시기들에 가무의 지방적특성이 강해졌는데 대

표적인것은 함경도의 《돈돌리리》, 강북지방의 《널리리》, 강원도의 《희양널리리》 등이다. 우리 민족의 가무는 그 역사가 오랜뿐만아나 예술형상적으로도 우수하다. 우선 다양한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가무는 각종 노동생활과 반질락, 반봉건투쟁, 인정세태, 무병장수, 민족유리 등 다양한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또한 룰동성이 풍부하고 형상표현력이 강하다. 우리 민족의 가무는 특히 장단이 좋다. 선조들이 즐겨 리용한 물장고는 소리가 예리하지 않고 그 울림의 여운이 길뿐아니라 웅글지고 구성진 울림으로 하여 세계 그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민족고유의 가무반주수단이였다. 참이며 승지를 비롯한 조

속명절들이나 경사로운 날에 가무놀이를 진행하는것이 보통이었던 다른 민족들과 달리 우리 민족은 일상생활에서 가무를 즐기면서 살아왔다. 이에 대해 19세기 우리 나라를 돌아본 외국인은 《조선기행》이라는 글에서 《아시아민족들중 조선사람보다 음악에 대하여 열렬한 애착을 가진 민족은 없을것이다.》라고 썼다. 반질락투쟁에서도 가무는 큰 역할을 놀았다. 우리 선조들은 외적을 쳐부시는 싸움터로 출전할 때에도 가무로 사기를 돋우고 외적들의 치열한 전투과정에도 농악을 울리며 노래춤판을 펼쳐놓아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일진 조국전쟁시기에 창작된 《강강술래》, 《페지나 청청나네》 등은 그 대표적인것들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전해져온 락천적이며 정서가 풍부한 가무는 오늘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에서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다. 본사기자

다보탑과 석가탑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에 있다. 두 탑은 8세기 중엽에 세운 돌탑으로서 세상에 자랑할만 한 건축유산이다. 다보탑은 2m이며 대웅전을 향하여 왼쪽에 서있다. 석가탑은 4m이며 불국사의 대웅전을 향하여 오른쪽에 있다. 다보탑은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균형미를 띠고있으며 열핏 보아도 안정감을 주면서도 날씬해보이는것이 녀성적이다. 석가탑은 높이가 약 8.2m이며 대웅전을 향하여 왼쪽에 서있다. 석가탑은 무게있고 빈틈이 없으면서 간결하고 굳세어보이면서 장중한것이 남성적이다. 본사기자

버섯의 독특한 성질 발견

연구자들이 버섯을 해빛처리하면 비타민D함량이 늘어난다는것을 밝혀냈다. 연구자들은 버섯이 천연비타민D원천으로서 극히 필요한 식품이라고 말하였다. 비타민D는 인체건강에 가장 유익한 비타민중의 하나이다. 이 비타민의 도움으로 암과 심장병, 당뇨병, 천식, 우울증, 비만증의 발생위험성을 훨씬 줄일수 있다. 본사기자

불목하니 (2)

글 리 빈, 그림 김 윤 일

(...바로 그때 왕릉을 헤치려던 왜놈들이 우리 월정사를 뚫어친것이 틀림없어.) 양서방은 이를 부드득 감으며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백호의 가치가 순금이라는 책에에만 있는것이 아닌줄 잘 알고있었다. (우리 조선민족의 시조인 단군성왕님의 상징인 백호를 더러운 섬소랑개들한테 빼앗기다니...) 먼 옛날 왕건이 고려를 세우기 몇십년전인 846년에 벌써 구월산 돌메에 널려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대손손 단군성왕을 잊지 않을 년령으로부터 단군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나라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는 사찰을 하나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찰이 들어앉을 명당자리로 지금의 월정사가 앉은 그 장소가 선정되었다. 단군이 오래동안 생활한 곳으로 알려진 단군굴, 오늘날에는 단군성전이라고 불리우는 단군이 무술을 연마하던 아사봉기슭의 이 자리가 상 더 좋은 자리는 없을것이었다. 사람들은 뜻대로 사찰을 잘 지은 다음에 부처를 모시는데서 만족할수가 없었다. 그들은 성의껏 시주를 하여 단군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된 백호를 부처의 이마 한복판에 박아넣었다. 한것은 민족시조인 단군을 밝은

임금으로 칭송하만큼 밝은 해마냥 둥근데다 변함없이 빛을 내는 순금백호가 단군의 상징으로 필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으며 따라서 자자손손 그 정신으로 월정사를 찾아 그 상징앞에 단군의 명복을 빌고 나라의 창창한 장래를 축복하여 빌기를 마치고는 세월이 흘러 어언간 천여년... 바로 이런 사연으로 하여 양서방의 조상들은 민족의 시조를 받는 궁지를 안고 대를 물려가면서 월정사 불목하니노릇을 이어가고있는것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월정사에 다른 사찰들에서는 찾아보지 못한 이렇듯 특이한 명분이 없었던단 양씨조안은 월정사 불목하니가 아니라 고향 룡연에서 물고기나 낚으며 조용히 살아갔을것이다. ...단군은 5 000여년전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문물을 크게 일으켰다. 단군의 《경천예빈》, 《리화세계》, 《홍익인간》의지에 따라 조선은 유구한 력사를 풍성한 문명창조로 가득채웠다.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은 단군의 후손으로 된 자부를 안고 그를 더더욱 숭배하였다. 아울러 단군이

서면려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